

하와이에서 철인이 된 Telsonic 대표 이사 인내를 필요로 하는 스포츠는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플라스틱 용접

금속 용접

절단

세척

스크리닝



이미 지난해 독일 Telsonic GmbH의 대표 이사인 클라우스 레겐베르크(Claus Regenberg)는 2018 하와이 철인 3종경기 세계선수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10월 13일 그는 40번째 철인 경기의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3.86km 수영, 1,700m의 험난한 고도에서 이루어지는 180.2km 사이클 및 영광스러운 마지막 종목인 42.195km 마라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정적이며 끈기 있는 선수인 그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바로 3종 경기 선수는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세계선수권 기간에 빅아일랜드의 카일루아 코나(Kailua-Kona)라는 작은 마을에서 환상적인 풍경과 독특한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꿈꾸곤 하는데, 클라우스 레겐베르크(Claus Regenberg)는 이곳에서 "철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의 성과를 거두어둘 수 있습니다"라며 끈기가 필요한 스포츠에 20년 넘게 전념해 온 Telsonic 대표 이사는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년 전부터 휴가 계획을 스포츠로 결정하는 가족들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8~14주 동안 이루어지는 철인 3종 선수의 집중 교육을 그는 가능하면 일상에서 실천하였습니다. 클라우스 레겐베르크(Claus Regenberg)에게 스포츠란 삶을 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산악자전거로 출근하고 이른 아침에 하프 마라톤을 하며 균형 잡힌 영양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는 "저는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지구력과 건강한 정신은 51세의 이사가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989년 대학 도시 에를랑겐(Erlangen)에 설립된 Telsonic GmbH는 그동안 그의 관리하에 플라스틱과 금속의 초음파 용착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기업으로서 발전해왔습니다. 레겐베르크(Regenberg)는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회사 로고가 새겨진 경기복을 입고 출전하여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열정적인 아마추어 선수가 이뤄낸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총 시간: **11:02:04**

등수: **118**
(나이대 50-54)